



[산업] LG 'G7 씽큐' 예판 이통시장 불황 타개책 될까 04



Economy

코스피	2477.71 (변동없음)	코스닥	865.93 (변동없음)
금리 (국고채 3년)	2.29 (+0.01)	환율 (원-달러)	1069.30 (-3.80) (11월)

# 국민 혈세로 GM 8천억 지원... '먹튀 노잣돈' 논란

## GM GM 먹튀논란

〈上〉 부실지원 우려

작년 순손실 1.1조 달해 출자금 배당 못 받을지도

한국지엠(GM)이 국민의 세금 예다 우리 정부 및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자금투입 등을 발판 삼아 내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잡았지만 정상궤도에 접어들 때까지 상당한 난제들이 남아있다. 여기에 국민의 혈세로 한국GM을 지원하지만 GM이 돈 잔치만 즐기고 '먹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오는 18일 GM 본사와 기본계약서를 맺는다. 올해 안에 한국GM 정상화에 7억5000만달러(8000억원)를 출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먹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혈세 '먹튀' 가능성

한국GM의 지분율은 GM이 83%, 산업은행이 17%다. 양측은



노조원들 항의 받는 배리 앵글 사장. /연합뉴스

이 지분율에 따라 한국GM에 '뉴머니'를 넣기로 했다. GM이 36억달러(3조9000억원), 산업은행이 7억5000만달러(8000억원)다. 산업은행은 8000억원을 한국GM의 시설투자 용도로 출자한다. 출자인 만큼,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지만 현재까지 한국GM은 적자기업이다. 실제 한국GM은 국내 판매와 수출 물량 하락으로 2014년 1000억원의 영업손실, 3000억원 당기순손실 기록했으며 이같은 손실은 고스란히 한국GM이 물려받았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는 점이다. 한국GM은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액이 10조6972억원, 영업이익 -8562억원, 당기순이익 -1조1598억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출자금을 날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한국GM의 모태가 되는 GM의 치열한 생존 방식도 문제다. GM의 경우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경영악화로 2009년 6월 1일 파산 신청했다. 미국 정부 소유의 공기업으로 바뀌면서 지배구조의 상당수는 미국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GM은 본사의 경영악화로 인도에서 철수했다. 러시아와 서유럽, 동남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지에서 공장을 축소 또는 폐쇄한 상태다. 이는 중국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이들 나라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17년에는 오렐을 PSA그룹에 매각하는 등 자사의 계열 브랜드들을 하나씩 팔아넘기거나 철수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또 한국GM이 내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잡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한국GM의 판매 감소로 붕괴된 영업망 복구 작업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1년간 문을 닫은 한국GM 대리점은 20여곳으로 이탈한 영업사원만 800여명에 달한다. 현재 남아있는 대리점과 영업사원은 각각 280여곳·270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들어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13일 "GM은 이미 6~7년 전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단물'을 더 빨아먹고, 나중에 될 때 산업은행이 쏟아부은 혈세 8000억원은 '노잣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양성은 기자 ysw@metroseoul.co.kr



'1층부터 123층까지' 수직 마라톤대회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수직마라톤대회 스카이런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목표지점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국제수직마라톤협회(ISF)가 공식인정한 대회 중 가장 높은 555m 참가 선수들은 1층부터 123층까지 2917개의 계단을 뛰어오른다. /연합뉴스

# 무리한 투자·횡령... 커피업계 1세대들의 몰락

탐앤탐스, 자금횡령 의혹 검찰서 본사 등 압수수색

카페베네, 무리한 업종확대 부채 1500억... 경영난 심화



국내 토종 커피업계 1세대들이 몰락하고 있다. 포화상태에 따른 과당경쟁, 무리한 투자, 횡령 등으로 내리막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미다스의 손' '커피왕'이란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다.

13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 검사)는 지난 11일 회사 대표의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커피전문점 탐앤탐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탐앤탐스는 국내 대표 1세대 토종 커피 브랜드로 꼽힌다. 2001년 시작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즈 탐앤탐스는 국내외에 400여개 가맹 매장을 두고 있다.

검찰은 김도균 대표가 경영 과정에서 회사 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탐앤탐스는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경영권을 쥔 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서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커피시장을 선도하고, 스타벅스를 위협하던 1세대 토종 커피 브랜드들도 생존 위기에 몰렸다.

'카페베네' 창업주인 김선권 전 대표는 8년 만에 회사를 떠났다.

김 전 대표가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10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토종 커피전문점의 신화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경쟁업체 증가에 따른 실적부진과 이탈리아 레스토랑 블랙스미스, 베이커리 마인츠돔, 드러그스토어인 디셈버24 등을 열었으나 경영난이 심화됐다. 지난 2014년 부채는 무려 약 1500억원에 달했고, 이후 사모펀드 K3파트너스, 한류벤처스에 인수됐다. 최승우 대표가 취임하고 550억원의 신규투자를 결정했지만 경영난에서는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故) 강훈 전 대표도 1세대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1992년 신세계백화점 공채로 입사했다. 1997년 스타벅스커피테스크포스(TF)로 활동했다. 이후 회사를 나

와 김도균 대표와 1998년 국내 최초의 카페 프랜차이즈인 할리스커피를 창업했다. 2003년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현 CJ E&M)에 할리스커피를 매각한 뒤, 김선권 전 대표와 카페베네의 신화를 이루는데 크게 일조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카페 전문점과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가맹점 수익이 떨어지고, 브랜드 차별화에도 실패하면서 상황은 어려워졌다.

1세대 토종 브랜드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대기업 커피전문점들은 성장을 거듭했다. 스타벅스커피의 지난해 매출 1조 2634억원, 영업이익 1144억원을 기록했다. CJ푸드빌의 투썸플레이스도 전국에 1000여개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확고한 시장지위를 가지고 있다.

/박인용기자 parkiu7854@

# 내년 하반기 상암DMC에 무인자율주행버스 달린다

C-ITS 구축 대상지로 선정 세계최초 테스트베드 구축

서울 상암DMC가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달리는 '자율협력주행' 기술의 시험 무대가 된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사업' 대상지로 상암DMC를 선정하고 오는 2019년까지 실제 도로 공간을 5단계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시험할 테스트베드(고도 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로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고도자율협력주행 시범지구'는 도로 인프라에 감지센서와 초고속 통신망을 촘촘하게 설치해 차량-도로인프라, 차량-차량 간 다양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도로환경이다. 시는 이곳을 어떤 차량통신망을 쓰더라도 실증 가능한 세계 최초의 테스트베드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해의 자율주행차량 사고는 야간이나 안개 등 상황에서 차량 센서를 통한 영상분석으로 신호등이나 사물정보를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V2X 기술은 자동차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

해 주행 중 교통인프라나 시설, 다른 차량 등과 무선통신을 통해 정보를 교환·공유할 수 있다.

교통 정보 전송에 쓰이는 5G 기술은 각종 위험정보를 0.1초 내 교환할 수 있는 저지연 고속 이동통신으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망 기술에는 KT가 참여한다.

시범지구에서 우회전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 역주행이나 급정지 차량, 낙하물 같은 돌발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차량과 도로에 설치된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변 차량에 제공한다. 시범지구 내 모든 운행상황은 교차로마다 설치된 CCTV를 통해 자율주행관제센터에서 빈틈없이 모니터링해 안전을 담보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범지구에는 각종 센서를 점검·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소와 휴게공간도 조성된다.

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암DMC 주요 거점 순환 '무인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무료운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을 기점으로 상암DMC 내 주요거점을 일 2~3회 순환하는 버스다. /이범중 기자 joker@

#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첫 걸음

23~25일 폐쇄 입장 밝혀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북한이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

를 통해 오는 23~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강도 폭파방식으로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

한 결정에서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이행하는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핵실험장의 폐쇄는 북한의 미

래핵을 제거하는 조치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핵실험을 해야만 하는데 이 실험을 하는 장소의 폐쇄로 이런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